

##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운동 연구: 쿠바 혁명을 중심으로\*

정이나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Jung, Ina (2018), "The Socialism in Latin America: Focusing on the Cuban Revolu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socialist movement, which can be considered as an anti-capitalist ideological foundation, and as a practical concept based on the specific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f Latin America as part of a region called the Third World. Generally, in the past socialism was understood as a movement, in which the working class are playing a major role. It was a 'scientific' belief that the essential limitations of the capitalist system lead to its inevitable collapse, and the theoretical direction and possibilities of the socialist revolution were suggested. It was a practical theory to conceptualize the extreme and destructive social phenomena that the capitalist order produces, which was the reason why socialist ideologies were developed around the UK and Western Europe where the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had initiated an earlier development. In this study, I examine the Latin American socialist movement, distinguished from that of Western Europe through Samir Amin's theory of periphery, analyzing the cause and nature of the Cuban Socialist Revolution.

**Key Words:** socialist movement, the Third World, Cuba, capitalism, imperialism

---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본 연구는 2017년 11월 다른백년 주최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에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완성된 논문임.

\*\* Ina Jung is an HK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inamundo@bufs.ac.kr).

##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사상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를 이른바 제3세계라 일컫는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재 고찰하는데 있다.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주의는 19세기 중반 이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전개한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이다. 실제로 사회주의 사상은 17세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중세 말 가톨릭 수도원 운동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원(Han 2011)이었다는 점은 마르크스·엔겔스 주도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실이다.

위 두 인물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사상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분석하고 비판한 실천적 이론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가 결국 필연적인 붕괴로 이어진다는 ‘과학적’ 믿음이었고,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방향과 가능성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질서가 양산하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이론적 결과물이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초기 산업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영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19세기 중반 이후 마르크스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 이론은 비록 후대의 소위 전통 ‘계승자’들에 의한 왜곡으로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자본주의 운동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자본주의 질서가 자유, 시장,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럴듯한 이념으로 무장하며 빠르게 재생산되는 동안 자유무역론자들이 약속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영국 맨체스터의 죽어가는 5만여 명의 직조공들의 처참한 현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이를 개혁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을 넘어서는 실천적 운동 이론이자 대안적 구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사상의 시작이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에 기생한 서구 자본주의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생산양식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한편으로 식민지 수탈 경제에 기반을 두는 유럽 제국주의의 확대를 의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약탈경제에 힘입어 확고한 자리를 잡는 계기였으며, 동시에 유럽의 대규모 산업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반자본주의 사상의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운동은 산업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결과물이며, 산업 노동자들이 그 사상의 담지자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노동자들의 존재가 지배적이었던 서구 유럽에서 노동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사상이 발전한 것은 무리가 아닐 터였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 사회주의 혁명은 서유럽이 아닌 자본주의 발전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으며, 현재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 쿠바는 노동계급이 아닌 이른바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성공한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혁명을 확산했던 '전통적' 사회주의 사상가들이나 사회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자'로 여겼던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좌파정권들이 속속 집권하던 20세기 말 라틴아메리카에서 노동자 계급은 더 이상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이 아니었다.<sup>1</sup> 심지어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었던 CTV(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Venezuela, 베네수엘라 노동자 총연맹)의 격렬한 저항을 받다가 하면, 전통적인 좌파 지식인들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모델을 부정하거나,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지 않는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베네수엘라 인류학자이자 사상가인 마리오 사노하 오베디엔테(Mario Sanoja Obediente)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위험성을 비판하고, 이론과 사상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적 현실들은 이제 거꾸로 이론의 '노예'가 된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은 비판의 도구가 되는 이론과 사상이 현실을 더 이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sup>2</sup>

오베디엔테 주장의 핵심은 기존의 지배적인 서구 사상의 패러다임이나 철학으

- 
- 1 반면에 브라질 노동당(PT) 출신의 룰라(Lula, 재임기간 2003-2011)의 당선은 라틴아메리카 최초 노동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과도한'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당의 거시적 목표와 달리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금융권 관리자들로부터 그의 내각을 구성하는 등 룰라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정책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 2 Jung(2013), 트랜스라틴 24호, 마리오 사노하 오베디엔테의 "21세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1306/pdf/Trans13062407.pdf>

로는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현실의 구체성, 그리고 사회의 역사성을 비롯한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Obediente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발전한 사회주의 사상과 다소 다르게 전개된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운동의 흐름과 1959년 이후 현존하는 쿠바 사회주의 혁명의 원인과 성격을 사미르 아민(Samir Amin)의 주변부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 현실 사회주의에 국한되어 연구된 사회주의 사상과 그 역사적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현존하는 쿠바 사회주의를 라틴아메리카 지역 고유의 사회정치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 제국주의 지배와 이어 19세기 미국과의 지배-예속 관계가 심화되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 뒤, 쿠바 혁명의 등장과 진행 과정의 구체적 성격 등을 사미르의 주변부 이론을 통해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간략한 소고를 끝으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 라틴아메리카 역사: 식민지화

### 유럽 정복의 역사(1492-1820)

유럽은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열게 해준 ‘영광’의 역사로 받아들인 반면, 아메리카는 유럽의 수탈지로 전락하는 식민지 역사로 기록하였다. 아메리카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정복이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가 저항의 역사로 접철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저항의 역사는 유럽인들에게는 반란과 폭동의 기록이었다.

다이아몬드(Diamond)의 분석처럼 많아야 3백 명을 넘지 않았던 유럽인들이 신세계의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던 수천 명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총과 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Diamond 1998). 이는 유럽 ‘문명’이 미개한 대륙의 ‘야만’에 대한 우월한 승리가 아니라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복전쟁으로 얻어낸 결과였을 뿐이다.<sup>3</sup>

유럽의 식민지 수탈과 착취로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500년 정복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식민지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정복에 저항하였고 이후에는 그들의 지배 방식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인, 그들의 후손 그리고 유럽인과 원주민과의 혼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종적’ 결합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지배 관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식민지에서 이루어진 ‘인종적’ 혼혈이 결코 ‘인종 간’의 유토피아적 결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유럽계 백인들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사회지배계층을 이루는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반면에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가장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틴아메리카는 1820년대 이후 유럽의 지배로부터 대부분 독립을 이루지만 독립국가의 건설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근대화’ 과정에서 대토지와 ‘강제노동’에 기반을 두는 농업수출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원주민의 삶은 오히려 유럽 식민지 시대보다 더욱 열악해졌다.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300여 년간의 유럽 식민지 역사의 잔재를 제거하는 대신 식민지 질서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방식의 지배구조를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른바 근대화 혹은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히 편입되었고, 식민지 시기부터 구축된 지배구조는 ‘후발’ 자본주의 성장을 위한 ‘손쉬운’ 착취경제의 기틀이 되었다.

## 라틴아메리카 근대화와 미국

스페인인 1898년 쿠바를 마지막으로 아메리카의 모든 식민지를 잃었고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은 완성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유럽의 철수는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로 급성장하고 있었던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실제로 쿠바의 독립은 스페인을 상대로 치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쿠바 혁명이 일어나는 1959년까지 미국 연방의 작은 섬을 연상케 하는 ‘반’식민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쿠바에 국한된

3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유럽 정복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유럽인들의 종교였던 가톨릭의 영향, 혹은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의 내부 분열 혹은 그들의 신화의 상징적인 존재와 유럽인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전투력의 상실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이후 미국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남쪽의 아메리카는 없었으며, 이는 1823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선언한 먼로 독트린의 완벽한 정치적 ‘성과’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시기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이른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급속하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어갔다. 과테말라는 1871년 이후 약 70여 년간 지속된 자유주의자들의 정권으로 현재 과테말라의 기형적인 사회구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멕시코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Porfirio Díaz, 1876-1911)의 근대화 정책은 결국 1911년 멕시코 혁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sup>4</sup>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란 ‘합법적’인 제도를 통한 착취와 수탈경제가 공고히 되어가는 과정에 불과했고, 미국에 대한 대륙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근대화의 주요 골자는 토지의 사적 소유 개념 확립과 자유로운 임노동자 양산이었다. 이로써 원주민 공동체 소유의 토지나 교회의 재산 등의 공동소유, 혹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과 토지에 대한 몰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토착 엘리트 계급들에게 대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혹은 이를 매수하기 위한 외국자본, 특히 미국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다. 몰수된 토지의 대부분이 외국자본과 소수의 토착 과두지배 계급에게 사유화되면서 20세기 라틴아메리카판 인클로저가 마무리 되어갔다. 이로써 토지를 잃은 원주민과 농민들은 손쉽게 ‘반봉건적 경제 시스템에 재편입 될 수 있었고, 대토지와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한 새로운 계급의 지배구도가 정착될 수 있었다.

특히 쿠바와 미국과의 종속 관계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쿠바의 주요 생산물이었던 사탕수수농업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860년대에 이르면 세계 총 공급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톤을 생산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은 아프리카에서 공급되는 흑인 노예로 충원되고 있었다.<sup>5</sup> 설탕의 주요 생산국이었던 쿠바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중요한 섬나라가 되었으며, 1880년대 이르면 쿠바의 주요 교역 대상은 이미 스페인이 아닌 미국이었다(Skidmore et al. 2014, 220). 이 같은 두 국가의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정치적 ‘간섭’과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4 과테말라 근대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Jung(2015)을 참고할 것.

5 쿠바의 노예제는 독립 직전인 1886년까지 지속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직접적인 이유이자 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쿠바의 경우 미서 전쟁이후 미국의 간섭은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진행되었다. 1901년 제정된 쿠바 헌법에 추가된 ‘플랫 수정안’으로 미국에게 ‘합법적’인 내정간섭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sup>6</sup> 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쿠바가 미국에 대해 가지는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Kim 2014, 221)이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쿠바가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이 한참이던 19세기 중후반 이후 미국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쿠바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미국의 은행가들은 설탕밭을 남김없이 매점하였으며, 쿠바의 철, 니켈, 망간 등과 같은 광업을 매점하며(Mills 1985, 27) 쿠바 경제의 소유권을 독점해 나갔다.

이처럼 유럽이 물러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미국의 방식은 과거 군사 점령과 같은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연속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즉 라틴아메리카는 미국 산업을 위해 자원을 공급하고 공산품을 소비하는 이른바 신 식민지적 관계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전략이다(Chomsky 2000, 244). 1945년 당시 CIA 소속 역사학자 헤인즈가 미국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산업화 계획에 반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식 차관에 기반하는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거부했으며, 대신 제3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는 중상주의적 접근을 선호했다는 주장 등은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사실들이다.

20세기 이후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에서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원료 공급지로서의 기능과 산업국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새로운 시장의 역할이 부과된 것과 다름없었다. 이 같은 불평등한 국제 분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발전의 불균등성은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인 사회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며 한편으로 외세에 대한, 특히 반미의식이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 쿠바 섬의 미국 관타나모 해군기지에는 이 당시 세워진 것으로 ‘영구적인 조치에 가까웠으며, 쿠바 영토 내에 미국의 항구적인 보루를 만든 것과 다름없었다(Skidmore et al. 2014, 222).

이에 다음 장에서는 1959년 쿠바 혁명 등장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새롭게 재편된 국제 환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미르의 주변부 이론을 중심으로 쿠바 사회주의의 특징과 성격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일반화되면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의 주체로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당시 서구 유럽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상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결과였으며, 혁명의 주체적인 세력으로써 산업 노동자 계급의 출현은 유럽 산업 자본주의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따르면 우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어야 했다. 노동자 계급이 다수가 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모순은 대중의 빈곤화를 심화시키며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노동자 계급은 그 중심에서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7</sup> 사회주의 사상은 당시 자본주의가 시작된 유럽 선진 자본주의 체제가 양산하는 모순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에 주목한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19세기 이후의 유럽 사회주의 운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급관계의 내적 모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마르크스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상은 당시 유럽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회의 역사적 조건 위에서 형성된 실천적 이론이다. 식민지 경험이 없는 제국주의적 국가 내부의 자본주의 모순이 실천적인 혁명 이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당시 유럽의 상황은 실천이론의 현실적 토대이자 객관적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 운동은 이와는 조금 다른 역사적 조건위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질서가 구축한 모순적인 사회적 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

7 이처럼 전통적인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전제가 되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모순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이에 자본주의의 '자연적' 붕괴론이 형성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는 이후 베른슈타인을 필두로 하는 수정주의 논쟁으로 불거진 "자본주의 위기 조절론"과 대립을 이루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은 Park 2004; Han 2011 등을 참고).

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모순이 급진적인 사회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사회주의 운동이 형식적으로 반미·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 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자본주의적인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종속적인 지배관계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기형적인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외적 동인이자 변수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쿠바는 이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1898년 직후 미국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였으며, 이는 단순히 쿠바 헌법에 추가된 플랫폼정안의 ‘내정간섭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미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쿠바의 주요 생산 품목이던 설탕에 대한 상당량의 독점권을 비롯하여 제당시설, 광산업 등과 같은 국가의 주요 생산 수단을 매점하고 있었다. 혁명 직전인 1956년 미국은 맨해튼의 중역실에 앉아 쿠바의 전기와 전신시설의 90% 이상을 움직이고 있었고 소위 ‘공익시설’이라고 하는 철도의 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다(Mills 1985, 31). 미국 정치는 쿠바에서 미국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했고,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조건의 군부 정권이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비호를 받는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정치적 간섭은 미국 자본의 이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운동은 반파시즘 연대라는 국제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우파세력에 의한 강력한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고, 높은 사회적인 지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Angell 1997, 95). 그러나 1945년 이후 전개된 냉전의 시작은 1917년 볼셰비키의 혁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라틴아메리카 좌파운동의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우선 모든 개혁적 성향의 정부는 미국의 철저한 정치적 감시와 군사적 통제 아래 거부되었다. 1954년 과테말라 아르벤스(Arbenz) 정권을 시작으로 1973년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의회 사회주의라는 평가를 받았던 칠레의 아옌데(Allende)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성향의 정부는 미국 CIA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쿠데타로 전복되거나 우파 군사독재 정권으로 교체되었다.<sup>8</sup>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토지개혁은 미국 유니이트 프루트 회사(United Fruit Company)의 직접적인 이권을 침해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성공이 미국 자본가들에게 미친 ‘손실’은 결코 적지 않았다. 미국이 쿠바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갖는 관심의 본질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간섭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이었다.

제2의 쿠바를 만들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는 1962년과 1966년 사이 라틴아메리카 9개국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증명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 혹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민중들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정부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염려한 조치였음은 물론이다(Angell 1997, 103). 1973년 칠레 피노체트가 주도한 무자비한 군부 쿠데타는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의회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아옌데 정부를 무너뜨렸고,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지원을 받는 반군 콘트라(contra)를 상대로 오랜 내전과 희생을 치러야 했다. 제2의 쿠바를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군사적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쿠바 혁명의 성공은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 노선으로 결정되는 주요 동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한 국내의 가혹한 정치탄압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도 같았다. 이미 1950년대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상태였다. 제2의 쿠바를 만들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은 국내의 억압적인 군부독재의 수립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비호하였다. 정치개혁을 위한 그 어떤 사회적 요구도 거부되었기에 게릴라 무장투쟁과 같은 방식의 급진적인 혁명 수단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배경이기도 하였다.<sup>9</sup>

8 당시 군부와 과두 지배 엘리트 계급의 쿠데타 명분은 아르벤스 정권의 ‘공산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아르벤스 정권은 ‘온건한’ 개혁주의 정권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Jung(2015)을 참고할 것.

9 한편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군부정권의 등장은 좌파의 급진화와 무장투쟁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Rouquié and Suffern(1997)의 주장처럼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군부의 대부분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냉전 상황이라는 국제적 환경과, 워싱턴의 (전략적) 정책에 의해 규정되는 역할에 지배되었다는 분석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다.

## 쿠바 사회주의 혁명: 사미르 아민(Samir Amin)의 주변부 이론을 중심으로

20세기 초반까지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농업 수출경제에 의지하는 반봉건적 사회구조였다. 따라서 강력한 산업노동자 계급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사실상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성장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아주 제한적이었다.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1934년까지 ‘합법적’인 미국 보호령이었다. 사탕수수에 기반하고 있는 쿠바의 단일작물 플랜테이션은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해주었고, 쿠바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은 이 같은 반봉건적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 방법이었다. 기업형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지는 물론 제당소와 같은 기본 생산시설은 대부분 미국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다수 쿠바인들의 노동력 착취로 성장하는 구조였다.

알메이라(Almeyra)에 따르면, 각각의 사회운동이 지닌 형태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겨나고 발전되는 사회 형태의 특징에 따르며, 특히 그가 속한 국가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과 도시화 정도,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통합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Almeyra 2014). 이는 1959년 쿠바 혁명을 설명하는데 있어 당시 쿠바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과 사회정치적 환경 등이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과거 식민지 경험과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이른바 제3세계라고 일컫는 주변부의 발전단계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분석한 사미르의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제3세계의 ‘저개발’의 원인을 단순한 ‘순수’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세계 자본 축적론의 관점에서 선진국의 자본주의 발전단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amir 1980, 115). 이는 한편으로 쿠바가 미국의 ‘경제’식민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쿠바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저개발’의 결과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닌,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주변부 국가에서 고착화되는 대중의 빈곤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sup>10</sup>

10 사미르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중심부 독점자본의 이윤으로 집중되는 잉여가치의 크기가 상대적·절대적으로

이에 본 장에서는 사미르의 이 같은 분석을 중심으로 쿠바 사회주의 혁명의 원인과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 주변부 이론과 쿠바

쿠바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사회정치적 징후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19세기 말부터 미국과의 종속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20세기 초반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쿠바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었고, 둘째, 사탕수수 단일 작물을 중심으로 확대된 대형 플랜테이션 경제가 양산하는 다수의 ‘빈곤한’ 노동계급과 농촌사회의 붕괴, 그리고 도시의 슬럼화와 대중의 궁핍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쿠바 사회의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려는 군부의 철권통치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었다.

쿠바의 민족주의는 19세기 중반부터 치른 독립전쟁에서 기인하고 있다.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쿠바는 곧바로 미국의 군사점령으로 이어지는 지배를 받으며 ‘합법적인’ 미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사탕수수 단일작물 경작에 기반한 쿠바 경제는 미국과의 종속관계를 더욱 심화시켰고, 대다수의 쿠바 국민들은 대형 플랜테이션 착취경제가 양산하는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반면, 아바나 클럽, 아바나 요트 클럽, 미라마르 요트 클럽, 기타 특권층을 위한 폐쇄적인 시설 등은 아바나에 사는 수천 명의 미국인들과 부유한 소수 지배층의 사교 장소가 되었으며, 미국 관광객들은 꾸준히 쿠바로 몰려들고 있었다(Skidmore et al. 2014, 232).

미국인과 바티스타 독재정권의 소수 지배계급의 특권은 다수의 쿠바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에 토대를 두는 사회의 기형적인 구조로부터 보장받고 있었다.<sup>11</sup> 사미르의 주장처럼 두 국가의 관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제국주의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착취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이었다(Samir 1986).

---

증가함에 따라 자본제적 착취의 중심이 주변부 민중의 착취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체제라는 기본적인 현실인식은 그가 주변부 민중의 빈곤화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분석틀이 되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은 Samir 1980; 1986을 참고할 것).

11 1917년 볼셰비즘에서 사회의 양극화가 핵심(Eley 2010, 279)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즉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1898년 이후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를 유지했던 쿠바는 현재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화는 보다 엄밀한 기능을 수행한다는(Samir 1986, 104) 명제가 고스란히 재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사미르가 언급하는 ‘주변부’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는 ‘주변부’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심부’로 형성되지 못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심부’와는 다르게 자본 축적을 지배하지 못하고 자본 축적이 주로 외부적 제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Samir 1986, 243).

다시 말하면, 원래 전자본주의적이었던 주변부에 대한 착취 형태의 유지와 재생산을 통해 잉여노동의 상당량을 수탈함으로써 중심부에서의 축적을 가속화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쿠바에 해당하며 미국은 중심부를 이루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예측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현이자 동시에 이 같은 예측 관계의 지속성은 주변부 국가의 소수 지배계층과 미국의 지배적인 독점자본과의 ‘계급적 동맹’을 통해 가능하다.

쿠바에서 미국인 소유의 제당소가 생산한 설탕의 양은 1906년 15%에서 1928년에는 75%까지 증가했으며, 1950년대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유지하고 있었다(Skidmore et al. 2014, 225). 1959년 이전 쿠바는 수출의 단일 작물인 설탕 산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미국의 독점자본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으며, 국내의 소수 매관 자본가들과 일부 대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군부 정권의 관료들은 이들과의 동맹, 즉 계급적 동맹을 통한 체제 유지를 보장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이 곧 사미르가 규정한 주변부 체제 유지의 주역인 쿠바의 지배계층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사미르는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대중의 ‘주변화’라는 특수한 사회적 현상을 지적한다. ‘주변화’란 대중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프롤레타리아화, 반(半)프롤레타리아화, 프롤레타리아화 되지 않는 농민의 궁핍화, 도시화, 도시 실업 및 저고용의 대량 증가 등을 예로 들고 있다(Samir 1986, 121). 당시 쿠바인들은 사탕수수 수확이 끝나면 전국에서 실업과 저고용에 시달려 도시의 빈민화는 심화되었고, 농촌에서는 예방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수천 명의 아이들 이 죽어갔다. 당시 쿠바 전체 인구의 3% 미만이 수도를 사용했으며, 겨우 3%만이 실내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의 9/10의 농민들은 오두막에서 석유 등잔으

로 살고 있었고, 쿠바 아이들의 2/3는 초등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입학한 아동들도 중도에서 학업을 그만두기가 일쑤였다.

이에 반해, 쿠바 지배층의 미국식 소비문화는 아바나를 비롯한 주변 지방 대도시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미국 자동차를 타고 마이애미와 뉴욕에서 쇼핑을 즐기며 최신 유행 상품과 소비재를 구매하는 등 쿠바 사회 상층부의 삶은 이미 미국의 부자들과 닮아있었다(Skidmore et al. 2004, 233). 이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현실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체제의 첫 단계에 주변부에서 ‘흔히’ 관찰되는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고 분석한 사미르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에 따르면, 쿠바 사탕수수 수출경제 부분의 발전에 의해 창출되어야 하는 주변부의 국내시장이 제한되고 편향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과거 중심부에 창출된 시장이 국내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며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주변부 국가에서는 대중 소비재에 대한 수요보다는 소수 상류계층의 사치재 소비에 집중하고, 국내시장은 이미 노동에 대한 저수준의 보수로 인하여 그 자체로도 제한되어 있던 대중소비재 수요가 더욱 줄었다(Samir 1986, 119). 뿐만 아니라 대중의 주변화야말로 소수 지배계급을 세계 체제로 통합시키고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조건이며, 그들이 유럽형의 소비 모형을 갖게 되는 기제라고 분석한다(Samir 1986, 122). 이 같은 해석은 현재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극단적이고 고질적인 사회 불평등의 양상을 해명하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쿠바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로서 경제적으로 초과 착취당한 결과로 인한 저개발 상태였으며, 미국 중심의 독점자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쿠바의 소수 지배계급은 이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쿠바 초대 대통령 에스트라다 팔마(Tomás Estrada Palma, 1902-1906)가 미국과의 합병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34년 정권을 잡은 바티스타는 니카라과의 소모사(Anastasio Somoza Debayle)나 도미니카의 트루히요(Rafael Leónidas Trujillo)와 같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충실한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했을 뿐이다(Alcántara 1999, 370). 이처럼 쿠바 군사독재정권과 소수 지배계급, 그리고 미국 독점자본과의 계급적 동맹은 사미르의 지적처럼 중심부가 주변부에서 꾸준히 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셈이다(Samir 1986, 140-142).

## 쿠바의 민족해방운동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쿠바에서 일어난 1959년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혁명 이전 쿠바 공산당이 카스트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적대적’ 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Angell 1997, 100). 뿐만 아니라 1959년 혁명은 당시 유효했던 서구 중심의 마르크스적인 혁명이론과도 일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소부르주아 혁명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Zaldívar 2014, 193). 소위 유럽 좌파들의 혁명 공식에는 사회주의 혁명은 애초부터 쿠바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사건은 특정한 시기의 고유한 사회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들을 형성한다. 19세기 이후 유럽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비참한 현실이 마르크스 사상과 이론의 현실적 토대가 된 것처럼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고유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쿠바는 유럽이 경험하지 못한 제국주의적 식민지 역사가 있었으며, 유럽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이른바 미국 제국주의 지배 아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히 예측되어 갔다. 유럽 식민주의 공백이 곧바로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이어졌던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적 예측 관계도 포함한다. 미국의 수많은 군사원조와 무기 공급의 역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쿠바인들이 생각하는 북아메리카에 대해 밀스(Mills)는 다음과 같이 일갈하고 있다.

우리(쿠바인들)가 알고 있는 것은 양키 정치와 양키 제국주의의 크고 날카로운 칼날뿐이다. [...] 그것은 쿠바에서 살아 온 일상생활의 현실이다. 할 일 없는 관광여행가, 설탕 독점자, 바티스타 독재의 지지자, 바티스타의 살인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 우리가 일거리가 없어 더러운 오막살이 밖에 나와 길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도 토지를 놀려두고 있는 것. 우리는 북아메리카를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 생각한다(Mills 1985, 21).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민족 해방이라는 민족주의적 호소가 사회주의 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1959년 혁명은 역사적으로 고착된 쿠바인들에 대한 착취와 횡포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피델(Fidel Castro)의 주장은 새삼스럽지 않다.<sup>12</sup> 유럽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이 식민지

12 관련된 피델의 연설문은 Bell Lara et al.(2008), *Documentos de la Revolución Cubana, 1961*, Instituto Cubano del libro, Cuba: Editorial Ciencias Sociales.

착취였다는 사실은(Han 2011, 26; Samir 1989, 157)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짐작케 한다.

현대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19세기 말에는 이미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른바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냉전체제와 함께 진행된 신식민주의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쿠바의 지배·예속 관계는 더욱 고착되었다. 이에 대한 박승호(Park)의 주장을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식민주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제3세계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적 지배·예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 이미 (유럽의) 식민지 시절 정립된 국제분업체제를 통해 한편으로는 남북교역관계에 의해서 경제적 지배·예속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컨대 중남미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미국자본이 직접 진출함으로써 제3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켰다(Park 2004, 340).<sup>13</sup>

이어 그는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예속 관계는 신식민지의 토착 지배세력을 통한 간접지배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다(Park 2004, 340). 쿠바의 경우 미국의 강력한 계급 동맹세력이자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바티스타 독재정권이 지배하고 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목이다. 이것이 1959년 쿠바 혁명이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해방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이다.

이는 민족해방운동을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해방운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미르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제국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정치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쿠바 혁명이 외관상으로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유럽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대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사회적 갈등의 직접적인 산물인 것처럼 말이다.

지난 20세기 동안 더욱 고착화된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의 심화는 적대적인 사회 계급관계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수 토착 과두지배 계급과 결탁한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초과 착취는 대다수 국민들의 궁핍화를 초래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sup>14</sup>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과거 식민지

13 인용의 괄호는 저자에 의한 것임.

역사와 함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미국과의 연속적인 지배관계는 서구 유럽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혁명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식민지 초과 착취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군사적 지배, 즉 국가 간 지배·예속 관계의 틀에서 민족 모순은 계급 모순의 ‘정치적 표현’의 형태에 불과하며, 민족 모순이 계급 모순의 사회적 형태로써 나타난다는 박승호의 분석은 설득력을 갖는다(Park 2004, 203-204). 쿠바 혁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제국주의적인 민족해방운동은 쿠바 사회의 내재적인 계급 모순의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일 뿐이다. 쿠바 혁명은 계급적 요구를 담은 ‘급진적’인 사회개혁 운동이었으며, 토착 지배세력과 계급적 동맹을 맺은 미국 자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일리(Eley)는 20세기 이후 유럽 좌파운동이 겪어온 오랜 딜레마에 대해 “전통적인 노동 운동과 계급 정치적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주의적 이상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자본주의가 축적한 부에 입각해서 평등한 민주주의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Eley 2010). 이에 비춰볼 때 쿠바의 경우 미국에 의한 지배·예속 관계로부터 형성된 민족해방에 대한 집단주의적 이상이 쿠바혁명을 통해 실현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적인 미국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한 쿠바인들의 야심찬 기획이었으며, 이것이 1959년 쿠바 혁명이었다.

## 나가는 말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경로와 사회정치적 조건의 토대위에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언제나 회의적이었다. 노동계급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른바 ‘전통 좌파’들의 비판을 받는다 하면,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카우디오’(Caudillo) 문화에 빚대어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지해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14 사미르는 저개발에 대해 “부르주아적 이론과는 달리 주변부는 빈곤한 것이 아니라 초과 착취에 의해 궁핍화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주변부의 빈곤을 재생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초과 착취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중 선동 정치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과정과 조건 위에 태동한 사회 변혁 운동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설명이다. 1944년 과테말라 혁명, 1959년 쿠바, 1970년 칠레, 1979년 니카라과, 그리고 1999년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일어난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부르주아 혁명에 가까웠던 1944년 과테말라 혁명은 10년 뒤인 1954년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경제개혁조차 지지당하며 ‘공산주의’ 정부라는 ‘오명’을 쓴 채 과두지배 계층과 미국의 집요한 개입으로 결국 쿠데타로 무너졌으며, 이후 36년간의 긴 내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1979년 발발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의 경우는 기독교가 참여한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과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은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언제든지 친미 군부정권을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을 반대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었고 가혹한 정치적 탄압이 뒤따랐다. 이미 1924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착취할 만한 가치를 지닌 땅”으로 브라질을 지목할 만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예사롭지 않았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새롭게 재편된 소위 새로운 냉전 체제에서는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체제 속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경제를 편입시킴으로써(Chomsky 2000, 244),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철저히 종속적이고 예속적인 지배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 프로그램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 더욱 치명적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는 결국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야기된 문제였으며, 월스트리트 자본의 이른바 성공적인 고리대금업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외채위기를 매개로 하여 초국적 자본의 경제 지배를 확장하고 금융투기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Park 2004, 494).

20세기 말 구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하자 자본주의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1994년 멕시코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Zapatistas) 운동을 시작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라틴아

메리카 전역을 지배하며 베네수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등 이른바 좌파정권들을 필두로 하여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Movimiento Popular)의 확산으로 이어진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상은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사상적 흐름의 일부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틀과 실천적 주요 핵심을 당시 19세기 유럽의 구체적인 현실과 조건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마르크스적인 사상의 핵심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러시아 현실 사회주의는 이른바 냉전이라는, 미국과의 체제 경쟁 구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능했으며, 유럽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대는 이미 자본주의 질서와 변영에 기대어 사회 민주주의라는 아주 ‘제한된’ 형태의 사회개혁으로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이후 등장한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적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이 되지 못한 채, 사회주의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좌절을 남겨놓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실패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되거나 계급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30여 년간의 신자유주의 실험은 빈부격차를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결국, 자본주의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움직임은 그것이 사회주의이든 혹은 제3의 대안적 선택이든 간에 계속 시도될 수밖에 없다.

20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 이른바 반자본주의 운동이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통해 야기된 정치지형의 변화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련연방이 붕괴한지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사장되어 버린 줄 알았던 ‘사회주의’는 다시 소환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쿠바 사회주의는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질서가 양산하는 모순적인 사회적 관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체제 내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 이론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고 사미르의 주변부 이론을 토대로 쿠바 혁명의 원인과 성격을 이론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쿠바 혁명의 고유한 사회정치적 성격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라틴아메리카의 현실 사회주의가 된 쿠바의 지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체제 유지와 발전 과정, 더 나아가 사회주의 운동 전반에 대한 전망 등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 연구라 해도 좋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쿠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guila, Juan M.(1994), *Cuba: Dilemas of a Revolution*, Colorado: Westview Press.
- Alcántara, Manuel(1999), *Sistemas políticos de América Latina*, Vol. II, Tecnos.
- Almeyra, Guillermo(2014), “Particularity of Cuba: The Registry of Cuba’s Socialist Movement,” in Ki-Hyun Kim(ed.), *Cuba,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nd the Future of Socialism*, Hanul Academy, pp. 295-313.
- Angell, Alan(1997), “La izquierda en América Latina desde 1920,” in Leslie Bethell(ed.), *Historia de América Latina: política y sociedad desde 19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3-129.
- Bell Lara, José(2007), *Documentos de la Revolución Cubana 1960*, Editorial de Ciencias Sociales.
- \_\_\_\_\_(2008), *Documentos de la Revolución Cubana 1961*, Editorial de Ciencias Sociales.
- Chomsky, Noam(2000), *Year 501: The Conquest Continues*, After.
- Diamond, Jared(1998), *Guns, Germs and Steel*, Munhaksasangsa.
- Eley, Jeoff(2010), *The Left 1848-2000*, Puriya Ifari.
- Guanche Zaldívar, Julio César(2014), “Democracy in Cuba,” in Ki-Hyun Kim(ed.), *Cuba,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nd the Future of Socialism*, Hanul Academy, pp. 191-201.
- Han, Hyeongsik(2011), *Marxist History*, GreenB.
- Huberman, Leo(2004), *Man’s Worldly Goods: The Story of the Wealth of Nations*, Chaekbeole.
- Jung, Ina(2013), “El humanismo socialista venezolano del siglo 21, de Mario Sanoja Obediente,”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1306/pdf/Trans13062407.pdf>
- \_\_\_\_\_(2015), “Guatemalan Civil War and Class Struggle: Focusing on Land Reform,”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4, No. 3, pp. 131-158.
- \_\_\_\_\_(2017), “A Study on Cuban Healthcare Policy with a Focus on Local Community Medicine and Primary Health Car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4, No. 3, pp. 153-186.
- Mills, C. Wright(1985), *Listen*, Yankee, NokDu.
- Obediente, Mario Sanoja(2008), *El humanismo socialista Venezolano del siglo 21*, Monte Avila.
- Park, Seung-Ho(2004), *The Critical Recomposition of the Leftist Theory of Modern Capitalism*, Seoul National University.
- Peláez, Severo Martínez(2011), *Motines de indios*, F&G editores.
- Pérez-Stable, Marifeli(1997),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32, No. 1, October, pp. 63-82.
- Rouguié and Suffern(1997), “La izquierda en América Latina desde 1920,” in Leslie Bethell(ed.), *Historia de América Latina: política y sociedad desde 1930*, Cambridge:

- University Press, pp. 281-337.
- Samir, Amin(1980), "Global Capital Accumulation and Underdevelopment," in Hyeong-Yun Byeon(ed.), *Economic Development of Third World*, Kkachigebang, pp. 94-121.
- \_\_\_\_\_(1986), *Class and Nation*, Miraesa.
- Skidmore, Thomas E. et al.(2014), *Modern Latinamerica*, GreenB.
- Valencia Almeida, Marelys(1998), "It's Time to Solve the Problems in Haiti and Central America," *Granma*, December 31.
- Zaldívar, Julio César(2014), "Democracia en Cuba," in Ki-Hyun Kim(ed.), *Cuba,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nd the Future of Socialism*, Hanul Academy, pp. 191-204.

Article Received: 2018. 06. 27.

Revised: 2018. 07. 27.

Accepted: 2018. 08. 08.